

『三國遺事』〈桃花女 鼻荊郎〉의 신화적 특징과 그 의미

엄 기 영*

국문초록 | 『삼국유사』 <도화녀 비형랑>은 신화적 특징과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공인 비형랑의 인물 형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도화녀 비형랑>에는 비형랑의 신이한 탄생과 성장 과정에서의 고난 그리고 초월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신성성을 입증하고 마침내 畏敬과 信仰의 대상이 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으며, 이는 건국시조신화의 주인공과 유사한 면모이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도화녀 비형랑>이라는 텍스트 형성에 정치적인 의도와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도화녀 비형랑>에는 다양한 층위의 복수(複數)의 텍스트들과 시각들이 병존하고 있으며, 이는 텍스트 내부에 모순과 균열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도화녀 비형랑>의 의미를 사륜왕, 길달, 비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정란황음”으로 인해 폐위 당한 사륜왕과 “성제” 사륜왕 사이의 모순은,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신화적 구성을 갖춘 이야기를 선택한 결과이다. “충직무쌍” 하던 길달과 여우로 변하여 도망치려 했던 길달 사이의 모순은 비형과 길달의 유사성 및 이들이 왕위를 둘러싼 대립 관계에 있음을 주목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었다. 즉, 사륜왕-진평왕-임종의 관계는 비형-진평왕-길달의 관계로 되풀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앞부분에서 정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비형은 뒷부분에 가서는 정치적인 성격을 잃어버린 채 민간 신앙의 대상으로서만 남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김춘추가 즉위하여 김용춘이 문흥대왕으로 추증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신문왕 대에 이르러 五廟制를 통해 사륜왕의 폐위가 공식적으로 부정되고, 유가 이념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체제를 필요로 하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서 이루어진 것이다.

* 嚴基榮. 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투고일 : 2013. 11. 7. 심사완료일 : 2013. 11. 19. 게재확정일 : 2013. 12. 3.

I. 머리말

『삼국유사』 <도화녀 비형랑>은 상당한 논란거리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로서, 일찍부터 역사학계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도화녀 비형랑>에서는 사륜왕(진지왕)이 “政亂荒淫”으로 인해 國人들에 의해 폐위 당한 후 죽었다고 서술되어 있는 반면 『삼국사기』에서는 정란황음이라고 할 만한 사건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사륜왕도 왕위에 있다가 자연사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도화녀 비형랑>은 사륜왕과 진평왕 사이의 왕위 교체를 둘러싼 사륜계와 동륜계의 갈등을 보여주는 텍스트로서 중요하게 다뤄진 것이다.

또한 선덕왕과 진덕왕 두 여왕 이후 사륜왕의 손자 김춘추가 진골 남성으로서 최초로 왕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骨品制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고, 폐위된 왕의 손자인 김춘추가 즉위함으로써 신라 중대 이후 무열왕계를 중심으로 한 전제왕권이 성립한다는 측면에서도 <도화녀 비형랑>은 신라 정치사의 주요 국면을 해명하는 데에 의미 있는 자료로 여겨진 것이다.

그 결과 역사학계에서는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었으며, 세부적인 의견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도화녀 비형랑>에서 기술된 사륜왕 폐위는 당시 사륜계와 동륜계 사이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비형은 사륜왕의 아들이자 김춘추의 아버지인 김용춘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¹⁾

1) 김기홍, 「桃花女·鼻荊郎 설화의 역사적 진실」, 『韓國史論』 41·42, 서울대 국사학과, 1999; 김덕원, 「金龍春의 생애와 활동」, 『명지사론』 11, 명지사학회, 2000; 김덕원, 「眞智王의 즉위에 대한 재검토」, 『백산학보』 63, 백산학회, 2002; 김두진, 「신라 진평왕대 초기의 정치개혁-삼국유사 소재 도화녀·비형랑조의 분석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러한 연구 시각은 <도화녀 비형랑>이 설화가 기록되어 남은 것이며, 설화는 다층적인 텍스트라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도화녀 비형랑>의 내용 하나 하나를 역사적인 사실과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분석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삼국유사』 <도화녀 비형랑>이라는 텍스트를 『삼국사기』가 누락시킨 역사적 사실을 채우기 위한 자료로 한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²⁾

문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역사학과 비교할 때 연구 성과가 그리 많지 않은데, 사료왕보다는 비형과 길달 사이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비형과 길달의 갈등을 불교와 토착신앙의 갈등이나 문명과 야만의 갈등으로 해석하는 연구가 그것이다.³⁾

한편, 근래에 문학 분야에서 <도화녀 비형랑>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문이름과 강은혜의 연구가 있어서 주목된다.⁴⁾ 문이름은 텍스트 내에서의 비형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여 그 과정을 3단계의 시련으로 구분하고, 비형은 자격

시련, 결정 시련, 영광 시련의 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비형이 주인공이지만 그 안에는 왕권 강화에 대한 진평왕의 의도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의도는 비형, 즉 사료왕의 아들 용춘을 포섭하여 동륜계와 사륜계를 결집시킴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종교적 맥락에서 볼 때는 왕실의 적극적인 불교 수용을 배경으로 하여 토착 종교에 대한 포섭과 배척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은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도화녀 비형랑>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하나는 이른바 ‘두두리 신앙’의 측면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진지왕계 복권신화적 기능의 측면에서이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진지왕은 ‘정란황음’이 아니라 개혁을 추구하다가 기득권 세력에 의해 폐위되었으며, 개혁의 주요 내용은 사랑부 두두리 신앙 집단과의 통합을 통한 왕권 강화이다. 도화녀와의 만남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진지왕의 개혁이 향속의 기층민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도화녀 비형랑>의 끝부분에서 진지왕이 聖帝로 불리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도화녀 비형랑>은 궁극적으로 진지왕의 명예회복과 성골이 아닌 진골로서의 신성화가 필요했던 김춘추의 처지와 관련이 있다.

문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선명한 대립구도 속에서 텍스트를 읽어냄으로써 명쾌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은 있으나 <도화녀 비형랑>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연구의 경우 연구자 개인의 견해에 따라 텍스트 내의 특정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아예 부정하는 식의 논지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도화녀 비형랑>이라는 텍스트를 연구자 개인의 학문적 성향에 따라 재단하지 않고 그 의미를 설명해 내기 위해서는 역사학과 문학 분야의 연구 시각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역사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서 텍스트를 분석하되 텍스트 내부의 구조와 균열에 관심을

『진단학보』 69, 진단학회, 1990; 김민혜, 『桃花女·鼻荊郎 說話를 통해 본 新羅 六部 統合過程』,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 문이름, 「<도화녀 비형랑>조의 서사구조와 의미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12, 56쪽 참조.

3) 김성룡, 「비형 이야기에 나타난 귀신 이야기의 구성 원리」, 『선청어문』 제24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1996; 김홍철, 『桃花女 鼻荊郎 說話 考』, 『교육과학연구』 제11집 제3호, 청주대 교육문제연구소, 1998; 신태수, 『桃花女·鼻荊郎 설화의 구성원리와 對稱的 世界觀의 方向』, 『한민족어문학』 제45집, 한민족어문학회, 2004. 한편, 이와는 다른 시각에서 <도화녀 비형랑>을 해석한 연구가 있다. 박태상, 「도화녀와 비형랑 설화에 대한 일 고찰」(『한국문화과 죽음』, 문학과 지성사, 1994)에서는 <도화녀 비형랑>이 사료왕과 도화녀의 이야기와 비형랑에 대한 이야기로 나뉘며, 이 두 이야기가 각각 전승되다가 후대에 합해진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미모’와 ‘죽음’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완형, 「도화녀 비형랑 조의 제의극적 성격 시고」(『한국문화논총』 제16집, 한국문화학회, 1995)는 <도화녀 비형랑>이 제의극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비형랑에 관한 토속 신앙이 주기적으로 제의극의 형태로 실연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문이름, 앞의 논문; 강은혜, 「<도화녀 비형랑> 설화에 나타난 두두리 신앙의 지역화와 진지왕계 복권신화적 기능」, 『어문학』 제120집, 한국어문학회, 2013.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도화녀 비형량>이 신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그간 <도화녀 비형량>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가 신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화녀 비형량>의 신화적 특징에 주목하여 분석의 시각을 마련한다는 것은 텍스트 외적으로는 역사적인 맥락을, 텍스트 내적으로는 균열과 모순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 시각을 통해 <도화녀 비형량>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도화녀 비형량>의 신화적 특징

<도화녀 비형량>은 비형량의 신이한 탄생과 능력 그리고 민간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그려지는 비형량의 모습이 신화 속 주인공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이다.⁵⁾ II장에서는 <도화녀 비형량>의 신화적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자.

첫째, 비형량의 신이한 탄생. 사실 고전서사 장르에서 주인공이 신이한 탄생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비형량의 신이한 탄생에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비형량이 하늘과

땅의 결합을 통해 태어난다는 설정 때문이다.

생전에 도화녀의 미색을 탐했던 사륜왕은 폐위되어 죽은 후에도 도화녀를 잊지 못하여 찾아온다. 사륜왕은 도화녀의 집에 7일 동안 머물렀는데 이때 오색 구름이 집을 덮었다고 하였다.⁶⁾ 사륜왕이 머무는 동안 오색 구름이 집을 덮었다는 사실은 사륜왕이 하늘을 상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도화녀는 그 이름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화’는 말 그대로 ‘복숭아꽃’을 의미하며, 이는 땅을 상징한다. 즉 비형량은 하늘/사륜왕과 땅/도화녀의 결합에 의해 태어난 존재이며, 이는 이후 그의 행적이 범상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비형량의 이러한 탄생은 단군신화의 단군이나 주몽신화의 주몽과 매우 흡사하다. 단군은 하늘/환웅과 땅/웅녀의 결합으로 태어났고, 주몽은 하늘/해모수와 땅/유화의 결합으로 태어났다. 단군과 주몽의 이러한 탄생 과정은 이들의 신성성을 뒷받침해 주는 바, 비형량 또한 유사한 탄생 과정을 거쳐 신성성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비형량의 성장 과정. 비형량은 그 신이한 탄생으로 인해 주위에 이름이 알려지고 마침내 진평왕이 소문을 듣고는 궁중에 데려다 기른다.⁷⁾ 사륜왕의 아들 비형량은 진평왕이나 진평왕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왕위를 둘러싼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형량을 굳이 궁중으로 데려다가 기른 것은 진평왕의 입장에서 보면 잠재적인 경쟁자를 감시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⁸⁾

5) 문이름, 앞의 논문에서는 <도화녀 비형량>에서 비형이 자격 시련, 결정 시련, 영광 시련이라는 3단계의 시련 과정을 거쳐 벽사신으로 좌정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도화녀 비형량>이 가지고 있는 신화적 특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은해, 앞의 논문에서는 <도화녀 비형량>이 무열왕의 진골시조신화적 기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도화녀 비형량>이 신화적 구성을 띠고 있음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6) 『三國遺事』 <桃花女 鼻荊郎>, “以其女入於房, 留御七日, 常有五色雲覆屋, 香氣滿室, 七日後忽然無蹤.”

7) 진평왕이 사륜왕의 아들 비형량을 데려가다 기른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동륜계에 대한 사륜계의 협조나 동륜계와 사륜계의 연대와 같이 두 정치 세력 간의 타협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진평왕이 사륜왕의 아들 비형을 자신의 아래에 두어 감시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8) 『三國遺事』 卷第1, 「紀異」 第2, “年至十五, 授差執事, 每夜逃去遠遊, 王使勇士五十人守之.”

비형랑의 이러한 성장 과정은 주몽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금와왕은 유희를 궁중으로 데리고 와 주몽을 낳게 하였으며, 주몽은 금와왕의 일곱 아들과 함께 자랐다. 태자 帶素가 왕에게, “주몽이란 자는 신통하고 용맹한 장사여서 눈초리가 비상하니 만일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⁹⁾ 잠재적인 경쟁자인 주몽에 대한 견제였으며, 대소를 비롯한 여러 왕자들과 신하들은 주몽을 해치기 위해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

주몽은 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고난을 겪지만 끝내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바, 그가 겪는 고난은 그의 승리와 신성성을 부각시키는 데에 그 서사적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몽만큼 심각한 고난은 아니지만 비형랑의 경우도 유사하다. 비형랑은 진평왕이 보낸 용사 50인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감시를 뚫고 성벽 위를 날아 넘어간다. 진평왕과 용사 50인의 감시가 도리어 비형랑의 능력과 신성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초월적 능력 발휘를 통한 신성성의 입증. 하늘과 땅의 결합을 통해 태어난 비형랑은 범인들과는 구별되는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도화녀 비형랑>에서 비형랑의 신이한 능력은 귀신들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비형랑의 이러한 능력은 구체적으로는 하룻밤 사이에 큰 다리를 놓고, 귀신 중 왕을 보좌할 만한 이를 천거하며, 길달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비형랑의 이러한 세 가지 행적은 주몽의 그것과 유사한 바가 있다. 부여를 탈출한 주몽은 물고기와 자라로 하여금 다리를 만들게 하여 강을 건너가 추격을 따돌리고, 재사·무골·묵거라는 인재를 만나 이들을 등용한다. 그리고 송양과의 대결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는데, 다음의

9) 『東國李相國集』 제3권, <東明王篇>, “太子帶素言於王曰, 朱蒙者, 神勇之士, 瞻視非常, 若不早圖, 必有後患.”

장면은 더욱 눈길을 끈다.

서쪽을 순행하다가 사슴 한 마리를 얻었는데 해원에 거꾸로 달아매고 저주하기를, “하늘이 만일 비를 내려 비류왕의 도움을 표몰시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니, 이 곤란을 면하려거든 내가 하늘에 호소하라.” 하였다. 그 사슴이 슬피 울어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니 장맛비가 이레를 펴부어 송양의 도움을 표몰시켰다.¹⁰⁾

주몽은 송양을 굴복시키기 위해 아무 죄 없는 사슴을 거꾸로 매달아 저주하여 비를 내리게 한다. 이는 비형이 여우로 변하여 도망치는 길달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잡아 죽이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주몽의 이런 모습이 그의 물리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심어준다면, 다음의 장면은 주몽이 하늘의 힘을 빌어 자신의 능력과 신성성을 보이는 장면이다.

7월에 검은 구름이 골령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 산은 보지 못하고 오직 수천 명 사람의 소리가 토목 공사를 하는 것같이 들렸다. 왕이, “하늘이 나를 위하여 성을 쌓는 것이다” 하였다. 7일 만에 운무가 걷히니 성곽과 궁실 누대가 저절로 이루어졌다.¹¹⁾

하늘이 주몽을 위하여 7일만에 성곽과 궁실 누대를 지어주는데, 이는 비형이 귀신을 부려 하룻밤 사이에 큰 다리를 놓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10) 『東國李相國集』 제3권, <東明王篇>, “西狩獲白鹿, 倒懸於蟹原, 呪曰, 天若不雨而漂沒沸流王都者, 我固不汝放矣, 欲免斯難, 汝能訴天, 其鹿哀鳴, 聲徹于天, 霖雨七日, 漂沒松讓都, 王以葦索橫流, 乘鴨馬, 百姓皆執其索, 朱蒙以鞭畫水, 水即減, 六月, 松讓舉國來降云云.”

11) 『東國李相國集』 제3권, <東明王篇>, “七月, 玄雲起鶴嶺, 人不見其山, 唯聞數千人聲以起土功. 王曰, 天爲我築城. 七日, 雲霧自散, 城郭宮臺自然成, 王拜皇天就居.”

것이다.

넷째, 畏敬과 信仰의 대상으로의 좌절. 하늘과 땅의 결합에 의한 신이한 탄생, 성장 과정에서의 고난, 초월적 능력의 발휘 등의 과정을 밟아온 비형량은 마침내 외경과 신앙의 대상으로서 좌절한다. 귀신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당시 신라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물리치는 힘을 지닌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비형량이 신적인 존재되었음을 의미한다. 주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구삼국사』에 의하면 주몽은 인간으로서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이 때문에 태자는 옥채찍을 대신 장사했다고 한다.¹²⁾ 그후 주몽은 고구려의 시조신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된다.

이상 <도화녀 비형량>의 신화적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화녀 비형량>의 신화적 특징들은 파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신화적 구성, 즉 주인공의 신이한 탄생 → 고난 → 능력 발휘 → 승리(외경과 신앙의 대상으로의 좌절)라는 틀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도화녀 비형량>은 극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건국시조 신화의 그것과 닮아 있는 것이다.¹³⁾

그렇다면 <도화녀 비형량>의 이러한 면모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 “신화란 그 전승집단의 성원들에게 진실하고도 신성하다고 믿어지는 이야기”¹⁴⁾이다. 이는 신화가 특정 집단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생겨나고 전승

됨을 의미한다. 특히 건국시조신화에는 정치적인 배경이 자리 잡고 있는 바, <도화녀 비형량>이 건국시조신화와 닮아 있다는 것은 이 텍스트의 형성에 정치적인 의도와 배경이 크게 작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화는 정치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신화는 여러 집단들 사이의 갈등 양상을 은폐하거나 과장하고, 왜곡하거나 변형시켜 그려낸다. 신화는 그 안에 다양한 층위의 복수(複數)의 텍스트들이 병존하는 중층적인 텍스트이다. 그리고 신화의 이러한 특징은 텍스트 내부에서 균열과 모순을 만들어낸다. 다음 장에서는 이 문제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Ⅲ. <도화녀 비형량>의 균열과 그 의미

Ⅱ장의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화녀 비형량>은 신화적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건국시조신화의 그것과 유사하다. 때문에 <도화녀 비형량>이 가진 의미는 단순히 그 내용 하나하나를 역사적인 사실과 대응시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며 자칫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부분을 지나치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거나, 논지 전개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특정 부분을 임의로 배제 또는 부정하는 독법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도화녀 비형량>의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텍스트 내부에 있는 균열과 모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Ⅲ장에서는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도화녀 비형량>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도화녀 비형량>을 그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東國李相國集』 제3권, <東明王篇>, “秋九月, 王升天不下, 時年四十, 太子以所遺玉鞭, 葬於龍山云云.”

13) “신라의 비형량에 대한 신이성을 굳이 고구려의 주몽과의 유사성에서 찾는지도 의문”이라는 심사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도화녀 비형량>의 이러한 특징을 굳이 강조한 것은 <도화녀 비형량>이라는 텍스트를 적층의 산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즉, 주몽을 인용한 것은, 건국시조신화의 보편적인 구성과 적층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지 주몽과의 유사성 그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으며 <도화녀 비형량>을 분석하는 이러한 기본 전제는 Ⅲ장에서의 논의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14)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 65쪽.

<도화녀 비형랑> 내용 구분

A	① 사륵왕의 정란황음과 폐위
	② 사륵왕과 도화녀의 첫 번째 만남
B	③ 사륵왕과 도화녀의 두 번째 만남
	④ 비형의 탄생과 행적
C	⑤ 辟鬼의 상징 비형

1. 사륵왕

사륵왕은 “政亂荒淫”으로 인해 國人들에 의해 폐위된 왕이다. 남편이 있는 도화녀를 찾아가 목숨을 위협하며 동침을 요구한 사건은 그의 황음한 면모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여색에 대한 사륵왕의 집착은 지독할 정도여서 그는 죽은 후 혼령이 되어서까지 도화녀를 찾아와 동침을 요구할 정도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①과 ②에서 이처럼 여색을 밝혔던 사륵왕이 혼령이 되어 찾아온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사륵왕은 이제는 남편이 없으니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도화녀에게 의사를 물을 뿐만 아니라 도화녀가 자신의 부모에게 가서 사륵왕이 찾아왔음을 고할 때까지 ‘암전하게’ 기다린다. 게다가 사륵왕이 도화녀와 동침하는 장면은 극히 신성하게 묘사되며, ⑤에 가서는 마침내 사륵왕은 ‘성제’로 불리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정란황음으로 인해 폐위당한 왕’과 ‘성제’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륵왕이 이처럼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에 대해서 진지왕이 도화녀를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어떤 위해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무도함이나 그 음란한 정도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가 하면,¹⁵⁾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오히려 진지왕이 명철한 지혜와 이성적인 사고로 현명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⁶⁾라고 주장하는

15) 김기홍, 『桃花女·鼻荊郎 설화의 역사적 진실』, 『韓國史論』 41·42, 서울대 국사학과, 1999, 138쪽.

입장이 있다.¹⁷⁾ 그러나 이는 <도화녀 비형랑>이라는 텍스트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지 않거나 간과한 해석으로 보인다. 다음은 <도화녀 비형랑>의 시작 부분이다.

제25대 사륵왕의 시호는 眞智大王이니 성은 김씨요 왕비는 起烏公의 딸인 知刀夫人이다. 大建 8년 丙申에 왕위에 올랐다. 나라를 다스린 지 4년만에 정치가 어지럽고 음란함에 빠졌으므로 國人들이 그를 왕위에서 폐하였다.

이에 앞서 沙梁部에 庶女가 있어 자태와 얼굴이 곱고 아름다워 당시 사람들이 桃花娘이라고 불렀다.¹⁸⁾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에 앞서(前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중심으로 <도화녀 비형랑>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①이 사륵왕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이라면 ②~⑤는 사륵왕의 행적 중 奇異하여 특별히 기록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즉, ②~⑤는 사륵왕의 정란황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정란황음한 행위 중 기이한 결과(비형랑의 탄생)를 낳은 일기기에 선택된 것이다.¹⁹⁾ 따라서 ⑤에서 사륵왕이 “성제”로 불린다는 이유로 사륵왕의 정란황음이 없었다고 간주하기보다는 이 둘 사이의 모순이 왜 생겨났는지, 이러한 모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 <도화녀 비형랑>을 이해하는 첩경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도화녀 비형랑>이 단일한 텍스트가 아니라 A, B, C 라는 각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들 사이에 시간적 거리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16) 김덕원, 『眞智王의 즉위에 대한 재검토』, 『백산학보』 63, 백산학회, 2002, 222쪽.

17) 강은해, 앞의 논문 또한 이러한 견해에 따라 사륵왕의 ‘정란황음’을 부정하고 있다.

18) 『三國遺事』 <桃花女 鼻荊郎>, “第二十五舍輪王, 諡眞智大王, 姓金氏, 妃起烏公之女, 知刀夫人. 大建八年丙申即位, 御國四年, 政亂荒淫, 國人廢之. 前此, 沙梁部之庶女, 姿容艷美, 時號桃花娘.”

19) 이와 함께 <도화녀 비형랑>이 『삼국유사』 「紀異」편에 수록되었다는 점 또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둘 필요가 있다.

<도화녀 비형랑>의 서사 진행 과정을 보면, 사료왕이 “성제”가 된 것은 서사 진행의 (부수적) 결과이지 목적이거나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도화녀 비형랑>은 비형의 초월적 능력에 대해 설명하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려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도화녀 비형랑>이 신화적 구성을 가지게 된 이유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신화적 구성을 갖춘 이야기말로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형은 왜 이토록 대단한 존재가 되어야만 했을까? 비형에 관한 이야기는 왜 신화적 구성을 가져야만 했을까? 이는 무열왕과 왕실의 절실한 필요 때문이었다. 김춘추의 왕위 계승이 정당한 것이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폐위 당한 사료왕의 손자’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했으며, 사료왕이 정란황음으로 폐위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아버지 金龍春을 높이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널리 퍼뜨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신화적 구성을 갖춘 이야기가 선택된 것이다.²⁰⁾

건국시조신화에서 주인공의 아버지는 언제나 신성한 존재로 그려진다.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그러하고,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가 그러하다. 그런데 이들 건국시조신화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신성한 존재로 만드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건국시조신화의 주인공들에게 아버지란 ‘不在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환웅은 웅녀를, 해모수는 유화를 임신시킨

20) <도화녀 비형랑>이 무열왕계의 정통성 강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학이나 역사학 분야의 연구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이며 본고 또한 이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다. 그런데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중요한 차이가 있다. 본고의 입장은, ①사료왕의 정란황음을 부정하지 않으며, ②이를 부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다면 일단은 문면 그대로 인정된 상태에서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설명해야 하며, ③<도화녀 비형랑>이라는 신화적 구성을 가진 텍스트를 필요로 했던 이유는 바로 사료왕의 정란황음이라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후 단군과 주몽이 태어나기도 전에 떠나버렸다. 역설적이지만, 애초에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신성한 존재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료왕과 비형의 경우는 다르다. 이미 신화의 시대는 지나버렸으며, 사료왕은 환웅이나 해모수와 달리 명백하게 존재했던/존재하는 아버지이다. <도화녀 비형랑>의 “정란황음”한 사료왕과 “성제” 사료왕 사이의 모순은 신화의 시대가 지나버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신화적 구성의 이야기를 선택한 결과이며, 이러한 모순은 끝내 지우거나 감출 수 없는 흔적으로 남은 것이다.

2. 길달

진평왕이 귀신의 무리 중에서 정사를 도울 만한 자가 있느냐고 묻자 비형랑은 길달을 추천한다. 과연 비형이 추천한 대로 길달은 “忠直無雙”하여 진평왕은 그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고, 각간 임종으로 하여금 양자로 삼게 한다. 그리고 길달은 흥륜사의 남쪽에 樓門을 세우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다. 그런데 이렇듯 진평왕의 기대에 부응하던 길달이 갑자기 여우로 변하여 도망치다가 비형에게 잡혀 죽임을 당한다.

“忠直無雙”과 “變狐而遁去” 사이에 있는 이러한 거리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²¹⁾ 충직무쌍하던 길달이 왜 갑자기 여우로 변하여 도망치려고 했을까? 비록 길달이 여우로 도망쳤지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것도 아닌데, 왜 비형은 그 즉시 길달을 잡아 죽였을까?

이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가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길달과

21) 길달의 이러한 돌변에 대해 야성을 끝내 버리지 못한 결과라고 해석하거나 불교와 토착신앙 사이의 갈등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도화녀 비형랑>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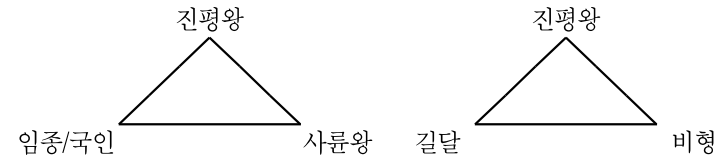
진평왕 사이의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길달과 비형 사이의 갈등이다. 그런데 길달에 대해 이미 “충직무쌍”하다고 서술하였고, 또 이러한 서술에 걸맞게 길달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으므로 진평왕과 갈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비형과의 갈등이 그 이유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비형과의 갈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비형과 길달 사이의 유사성이다. 비형은 진지왕의 이들로써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허룻밤 사이에 鬼橋를 세움으로써 그 능력을 입증한다. 길달은 임종의 (양)아들로서 역시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홍륜사의 樓門을 세움으로써 그 능력을 입증한다. 진평왕으로부터 執事 벼슬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같다. 더구나 사료왕의 아들 비형은 왕위 계승 문제의 관련 당사자이고, 임종 또한 화백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왕위 계승과 관계가 있다.²²⁾ 비형과 길달 사이의 유사성은 둘 사이가 라이벌 관계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우리는 진평왕이 왜 굳이 비형에게 鬼衆에서 국정을 보좌할 자를 추천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진평왕에게는 前王의 아들인 비형의 존재와 비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앞서 II장에서 서술했듯이 진평왕이 비형을 궁중에 데려다가 기르고, 또 용사 50인으로 하여금 그를 지키게 한 것에는 왕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가까이 두고 감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결국 진평왕이 비형에 맞먹는 능력을 지닌 길달을 등용하고, 또 각간 임종의 뒤를 이을 아들 즉 嗣子로 삼게 한 것은 비형과 길달 사이에 일종의 ‘충성 경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비형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여우로 변하여 도망친 길달을 굳이 비형이 잡아 죽인 것은 길달을 추천한 것이 진평왕의 요구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비형은 길달을 잡아 죽임으로써 충성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라이벌 구도를 없애고 진평왕의 견제를 막았던 것이다.

그런데 진평왕-비형-길달의 이러한 관계는 진평왕-사료왕-임종의 관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주지하듯이, 사료왕은 정란황음을 이유로 국인들에 의해 폐위 당했고, 진평왕이 왕위를 계승했다. 국인들에 의해 폐위 당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사료왕의 폐위를 화백회의의 구성원들이 주도한 것이다. 왕위 계승이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사료왕, 진평왕, 국인들 사이의 밀고 당기는 긴장 관계가 만들어졌던 것인데, 이러한 구도가 비형, 진평왕, 길달 사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충직무쌍하던 길달이 갑자기 여우로 변해 도망치려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길달이 라이벌 관계에 있던 비형과의 대결에서 패했음을 보여주며, 비형의 입장에서는 길달을 없앴으로써 왕위 계승을 둘러싼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우위를 공고히 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형의 이러한 우위는 훗날 김춘추가 진덕여왕 사후 알천공을 왕으로 추대한 화백회의의 결정을 누르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상황을 예비하는 것이었다.²³⁾

3. 비형

22) 『三國遺事』 卷第1, 「紀異」 第1 <眞德王>, “王之代有關川公·林宗公·述宗公·虎林公(慈藏之父)·廉長公·庾信公, 會于南山弓知巖, 議國事.”

23)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及眞德薨, 群臣請關川伊浚攝政. 關川固讓曰, 臣老矣, 無德行可稱, 今之德望崇重, 莫若春秋公, 實可謂濟世英傑矣. 遂奉爲王, 春秋三讓, 不得已而就位.”

<도화녀 비형랑>에서의 비형의 모습은 길달이나 사륜왕과 달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비형의 신이한 탄생과 초월적 능력의 발휘가 그려지는 B나 귀신들이 비형의 이름만 듣고서도 두려움에 떨며 도망간다는 C, 이 둘 모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상통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B와 C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 바로 비형과 鬼衆 사이의 관계가 변한 것이다. B에서의 비형은 鬼衆을 부림으로써(率鬼)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는 반면, C에서의 비형은 이들을 물리침으로써(辟鬼) 그 능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이는 비형의 성격과 위상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비형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성격이 사라지고 오로지 민간 신앙의 대상으로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건국시조신화의 주인공이 그 전승집단의 성원들에게 건국시조신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의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비형에게서 정치적인 성격이 사라지고 민간 신앙의 측면만 남았다는 것은 비형의 정치적인 성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는 뜻이다. 김춘추의 아버지 김용춘이 비형이라는 인물의 소재적 원천이라고 할 때, 비형에게서 정치적인 성격이 감소되기 시작한 것은 김춘추가 왕위에 즉위하여 김용춘을 文興大王으로 추증하면서부터라고 추정할 수 있다. 자신은 왕위에 오르고 아버지는 왕으로 추증한 상황에서 자칫 황당무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비형 이야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왕실의 위엄과 신성성을 강조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²⁴⁾

그렇다면 김용춘과 비형 사이의 거리와 완전히 멀어져서 더 이상 둘 사이를 연결 지을 수 없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필자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문왕 7년의 다음과 같은 기록에 주목하고자 한다.

24) 게다가 당시 신라 왕실이 불교라는 보편종교를 기반으로 왕권을 강화해 나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속적인 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는 비형랑이라는 존재는 그 '이용가치'가 떨어졌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대신을 祖廟에 보내 제사를 올리고 아뢰었다. “왕 아무개는 머리 숙여 再拜하고 삼가 太祖大王, 眞智大王, 文興大王, 太宗大王, 文武大王 영전에 아뢰입니다. 저는 재주와 덕이 없이 숭고한 유업을 계승하여 지킴에 자나깨나 걱정하고 애쓰느라 편안하게 지낼 겨를이 없었습니다. 종묘의 돌보심과 하늘과 땅이 내리는 복에 힘입어 사방이 안정되고 백성들이 화목하며,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은 보물을 실어다 바치고, 형벌이 밝고 訟事가 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략)”²⁵⁾

위의 인용문은 신문왕 대에 이르러 五廟制에 따라 조묘에 제사를 지낸 기록이다.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진지왕(사륜왕)의 존재이다. 사륜왕은 “진지대왕”이라는 시호가 붙여졌을 뿐만 아니라 五廟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즉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사륜왕의 ‘정란황음’과 이로 인한 폐위는 부정된 것이며, 『삼국유사』와 달리 『삼국사기』에 사륜왕의 정란황음과 폐위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김춘추의 즉위로부터 시작된 비형과 김용춘의 분리는 사륜왕이 복권됨에 따라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신문왕 대의 시대적 상황 또한 이상과 같은 추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열왕과 문무왕을 거치면서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당나라를 몰아냄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정치체제와 질서를 필요로 하는데, 아래의 기록들은 이런 정황을 반영한다.

2년 (중략) 6월에 國學을 세우고 卿 1인을 두었다.²⁶⁾

25)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遣大臣於祖廟, 致祭曰, 王某稽首再拜, 謹言太祖大王·眞智大王·文興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之靈, 某以虛薄, 嗣守崇基, 寤寐憂勤, 未遑寧處, 奉賴宗廟護持, 乾坤降祿, 四邊安靜, 百姓雍和, 異域來賓, 航琛奉職, 刑清訟息, 以至于今.”

26)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二年, 春正月, 親祀神宮, 大赦. 夏四月, 置位和

6년(중략)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禮記와 文章을 청하니, 則天武后가 담당 관청에 명하여 吉凶要禮를 베끼고 文館詞林 가운데 모범으로 삼을 만한 글을 골라 50권의 책으로 만들어 주었다.²⁷⁾

9년 봄 정월에 중앙과 지방 관리들의 祿邑을 폐지하고 해마다 租를 차등 있게 주어 일정한 법으로 삼았다.²⁸⁾

위의 기록들은 신라가 새로운 정치체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 새로운 정치체제라는 것이 儒家 이념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문왕 대에 활동했던 薛聰은 신문왕에게 화왕계를 이야기하며 白頭翁으로 상징되는 유가적 지식인을 등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²⁹⁾ 설총과 같은 지식인이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시대적 흐름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 흐름과 함께 비형의 존재와 역할은 국가적인 위상과 정치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민간 신앙의 차원으로 축소되었던 것이다.

IV. 맺음말

본고는 『삼국유사』 <도화녀 비형랑>을 대상으로 삼아 그 신화적 특징을 밝히는 한편, 텍스트 내부에 있는 균열과 그 이유에 대해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논의의 결과를 요약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그간 선행 연구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도화녀 비형랑>의 신화적 특징에 주목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비형랑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화의 주인공과 유사하다.

첫째, 신이한 탄생. 비형랑은 하늘을 상징하는 사료왕과 땅을 상징하는 도화녀 사이에서 태어나는바, 하늘과 땅의 결합에 의한 출생은 비형랑에게 신성성을 부여해 주는 장치로서 단군과 주몽이 각각 환웅과 웅녀, 해모수와 유화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둘째, 성장 과정에서의 고난. 비형랑은 그 신이한 탄생으로 인해 진평왕에 의해 궁중에서 길러진다. 이는 진평왕의 입장에서 보면 잠재적인 왕위 경쟁자를 감시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비형랑은 적대자들의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이는 주몽을 임신한 유화가 금와왕에 의해 궁중에서 주몽을 출산하고, 주몽이 금와왕의 아들들과 함께 자라는 것과 같다.

셋째, 초월적 능력 발휘를 통한 신성성의 입증. 비형랑은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신성성을 입증한다. 귀신을 부려 하룻밤 사이에 큰 다리를 놓고 길달을 잡아 죽임으로써 그의 능력과 신성성이 드러난다. 주몽 또한 마찬가지로 마참가지이다. 주몽은 부여에서 탈출할 때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다리를 만들어 강을 건너고, 송양과의 대결에서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며, 마침내 하늘의 힘을 빌어 성곽과 궁실, 누대를 짓는다.

넷째, 畏敬과 信仰의 대상으로의 좌정. 하늘과 땅의 결합을 통한 탄생, 성장 과정에서의 고난, 초월적 능력의 발휘 등의 과정을 밟아온 비형랑은 마침내 외경과 신앙의 대상이 된다. 귀신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신라 사람들에게는 잡귀를 쫓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주몽 또한 마찬가지이다. 주몽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죽음을 뛰어넘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 그리고 주몽은 고구려의 신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된다.

府令二人, 掌選舉之事. 五月, 太白犯月. 六月, 立國學, 置卿一人. 又置工匠府監一人, 彩典監一人.”

27)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六年, 春正月, 以伊淪大莊爲中侍, 置例作府卿二人, 二月, 置石山馬山孤山沙平四縣, 以泗泚州爲郡, 熊川郡爲州, 發羅州爲郡, 武珍郡爲州, 遣使入唐, 奏請禮記并文章, 則天令所司, 寫吉凶要禮, 并於文館詞林採其詞涉規誡者, 勒成五十卷, 賜之.”

28)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九年, 春正月, 下教罷內外官祿邑, 逐年賜租有差, 以爲恒式 (하략).”

29) 『三國史記』 卷第46, 「列傳」 第6, <薛聰> 참조.

III장에서는 II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화녀 비형랑>이라는 텍스트 내부에 있는 균열과 이로 인한 모순을 그 구조와 역사적인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정란황음”으로 인해 폐위 당한 사륜왕과 “성제” 사륜왕 사이의 모순은, 이미 신화의 시대가 지나 버린 상황에서 “정란황음”으로 인해 폐위 당한 왕의 아들과 손자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신화적 구성을 갖춘 이야기를 선택한 결과였다.

“충직무쌍”하던 길달과 여우로 변하여 도망치려 했던 길달 사이의 모순은 비형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비형과 길달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이 둘 사이가 왕위를 둘러싼 라이벌 관계라는 사실에 주목함으로써 밝힐 수 있었다. 즉, 사륜왕-진평왕-임종의 관계는 비형-진평왕-길달의 관계로 되풀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전자에서는 사륜왕이 패했지만, 후자에서는 비형이 승리함으로써 훗날 김춘추가 화백회의의 결정을 누르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도화녀 비형랑>에서 비형은 앞부분에서는 정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정치적인 성격은 거의 사라지고 민간 신앙의 대상으로서만 남게 된다. 비형의 이러한 변화는 김춘추가 즉위하여 김유춘이 문흥대왕으로 추증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신문왕 대에 이르러 五廟制를 통해 사륜왕의 폐위가 공식적으로 부정되고, 유가 이념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체제를 필요로 하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서 이루어진 것이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東國李相國集』

강은해, 「<도화녀 비형랑> 설화에 나타난 두두리 신앙의 지역화와 진지왕계 복권신화적 기능」, 『어문학』 제120집, 한국어문학회, 2013, 111~139쪽.

김기홍, 「桃花女·鼻荊郎 설화의 역사적 진실」, 『韓國史論』 41·42, 서울대 국사학과, 1999, 131~159쪽.

김덕원, 「金龍春의 생애와 활동」, 『명지사론』 11, 명지사학회, 2000, 144~182쪽.

김덕원, 「眞智王의 즉위에 대한 재검토」, 『백산학보』 63, 백산학회, 2002, 211~236쪽.

김두진, 「신라 진평왕대 초기의 정치개혁-삼국유사 소재 도화녀·비형랑조의 분석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69, 진단학회, 1990, 17~38쪽.

김민혜, 「桃花女·鼻荊郎 說話를 통해 본 新羅 六部 統合過程」, 한국고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41쪽.

김성룡, 「비형 이야기에 나타난 귀신 이야기의 구성 원리」, 『선칭어문』 제24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1996, 377~410쪽.

김홍철, 「桃花女 鼻荊郎 說話 考」, 『교육과학연구』 제11집 제3호, 청주대 교육문제연구소, 1998, 57~74쪽.

문아름, 「<도화녀 비형랑>조의 서사구조와 의미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68쪽.

신태수, 「桃花女·鼻荊郎 설화의 구성원리와 對稱的 世界觀의 向方」, 『한민족어문학』 제45집, 한민족어문학회, 2004, 449~476쪽.

이완형, 「도화녀 비형랑 조의 제의극적 성격 시고」, 『한국문학논총』 제16집, 한국문학회, 1995, 163~180쪽.

장장식, 「도화녀 비형랑 설화의 성립과 의미」, 『황산이홍종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간행위원회, 1997, 813~836쪽.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1990.

Abstract

THE MYT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TS MEANINGS OF
'DOHWANYEO BIHYEONGRANG' IN SAMKUKYUSA

UM, KI YOU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give a new analysis of 'Dohwanyeo(桃花女) Bihyeongrang(鼻荊郎)' in Samkukyusa(三國遺事) by focusing on the myt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ts meanings which till now researches didn't give attention to. Bihyeongrang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hero of myth—his sacred birth, sufferings in growth process, transcendental power and turning into a god.

These facts has two meanings. One is that there were the political intentions, the other is that there were antinomy in 'Dohwanyeo Bihyeongrang'. So I examined the meanings of 'Dohwanyeo Bihyeongrang', focusing on King Jinji(眞智王), Kildal(吉達) and Bihyeong.

King Jinji had two looks—"disordered and promiscuous king" and "good and wise king", these resulted from the process of justifying King Muyel(武烈王)'s succession to the throne. Kildal, a loyal retainer changed his figure into a fox and ran away, but he was killed by Bihyeong. It emblemize that Kidal was Bihyeong's rival in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The character of 'Bihyeong' is political in forepart, but god of folk belief in the end part. This change had begun in the time when Kim Yongchun(金龍春) was conferred honors posthumously and Bihyeong was separated from Kim Yongchun in the reign of King Shinmun(神文王) when King Jinji's dethronement was denied officially and new political structure based on Confucianism was on the rise.

Key Word : Samkukyusa(三國遺事), Dohwanyeo(桃花女), Bihyeongrang(鼻荊郎), King Jinji(眞智王), King Jinpyeong(眞平王), mythological characteristics